

〈시인 할머니의 거짓 앓는 자연〉

글 그림 황보출



자 연 에 서 우 가
사



봄이 오니 새잎이 나오고
꽃망울도 맺었다.

내눈 하고 꽃눈 하고 마주_ㅅ쳤다.
눈 인사를 _ㅅ했다.



왕 벌이 날아와서 호박꽃 꿀을 먹고



새벽처럼 날아가고 없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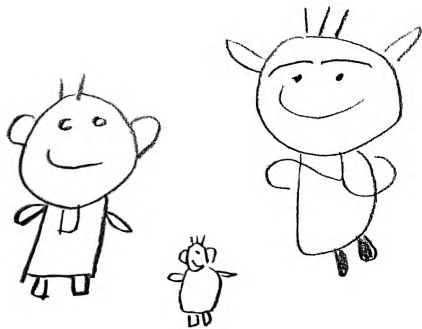


비를 맞고 잎이 윤기가 났다.

자연이 눈이 부셨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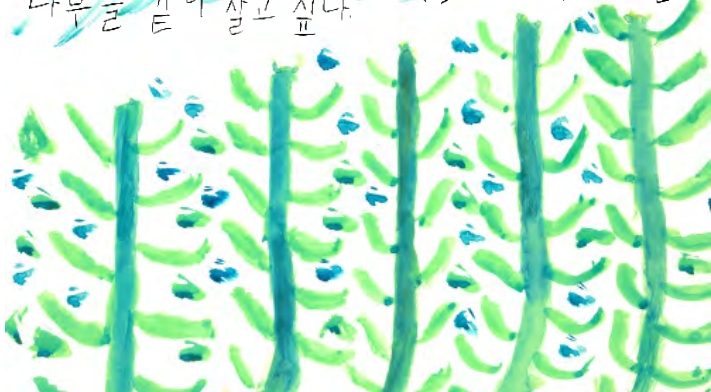




사람은 때로는 거짓말도 한다.

태풍 있어도 넘어지지 않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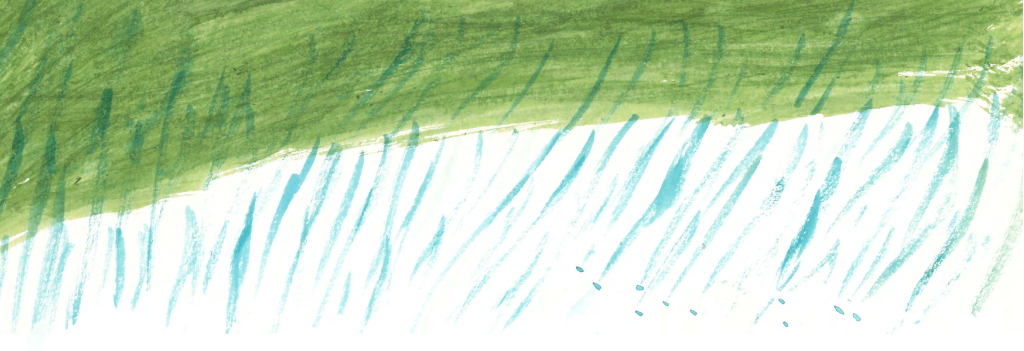
저산의 나무들 같이 살고 싶다. 나도 자연 처럼 살고 싶다.



가을 바람 불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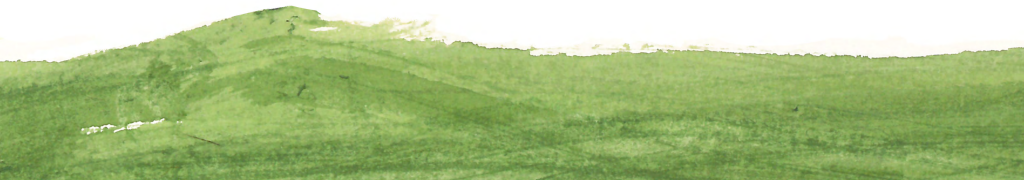
내 머리에 억새 새알 날아와네

내년 머리에 억새 꽃
새싹이 나올 것 같다



마음 조금 우울 할 때
자연만 보면 아무 생각도 없다.

모든 생명은 말이 없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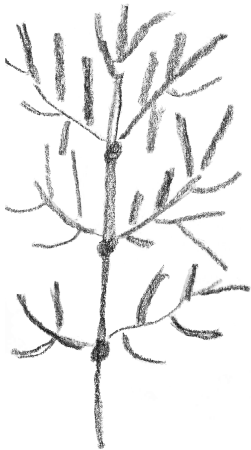




둘도 그냥 보지 않고 유심히 본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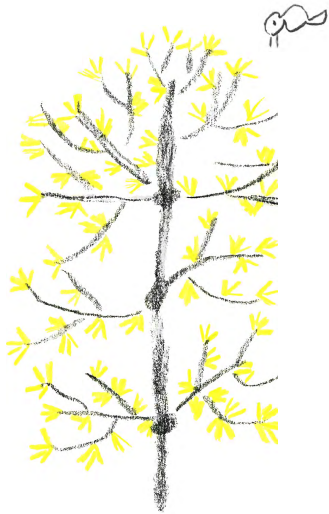


도도 생명이다.



나무 한그루 चुप고 하니
추운 겨울 잠자고 깨어나

새 싹이 나오고 귀엽다.





갈 때도 자연으로 갈 텐데